

안기현선생님에게 일이 너무 물리는데 2월 중순 이후 일이 공백이 생길 듯 합니다 36모형제작 총괄(심지어 정이삭소장 포함), 도면제작, 전시장 레이아웃, 테이블 디자인, 조명디자인 (2월 말에 끝나고 선적해야하는 일) 등의 일이 안기현선생에게 쏠리는 듯합니다. 신은기선생에게 다른 일을 부탁하고 (김승범선생과 같이 데이터, 도시배경, 인트로 등 - 2월 이후에도 가능한 일), 안기현선생을 도울 제3의 선수가 필요한듯합니다. 5월설치 1진으로 정다운, 김형범 갈 때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정다운씨가 남편(김빈소장)이 가면 어떻겠냐고 합니다.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 시점에서 안기현선생의 사수로 1-2주일 정도 김빈소장에게 일을 부탁하면 어떨까요? 물론 그쪽 사정을 전혀 모르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. 의견주시면 정다운씨와 상의하고 오늘 회의이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.